



OVERWATCH®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3/5



MARIKO TAMAKI
BABS TARR

B.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3/5



오버워치 해체 후 수년이 흐르고, 세상에는 불의가 횡행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지각력과 지능을 갖춘 옴닉이라는 로봇들은 옴닉 사태 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차별의 종식과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웅은 흔히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나죠.

트레이서는 이기와 협력하여 옴닉의 지하 세계 전력의 원천인 그리드를 수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트레이서는 옴닉의 저명한 철학자 몬다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 직후, 트레이서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몬다타는 암살당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런던의 옴닉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집니다.

글 *MARIKO TAMAKI* 그림 *BABS TARR* 그림 어시스턴트 *HEATHER DANFORTH*
레이아웃 *HUNTER CLARK* 채색 *RACHAEL COHEN* 영문 식자 *DERON BENNETT*
한글 식자 *SOPHIA HONG* 표지 *BENGAL*

다크 호스 코믹스

대표 및 발행인 *MIKE RICHARDSON* 선임 편집자 *PHILIP R. SIMON*
디자이너 *PATRICK SATTERFIELD*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ALLYSON HALLER*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PAUL MORRISSEY* 프로듀서 *FELICE HUANG, BRIANNE MESSINA, DEREK ROSENBERG*
소비자 제품 디렉터 *BYRON PARNELL* 북 아트 & 디자인 매니저 *BETS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MICHAEL CHU, JEFF CHAMBERLAIN, ARNOLD TSANG, GEORGE KRSTIC, ALYSSA WONG, SEAN COPELAND, MADI BUCKINGHAM*



도움 주신 분 *DAVID SEEHOLZER*

DarkHorse.com Facebook.com/DarkHorseComics Twitter.com/DarkHorseComics

OVERWATCH® © 2020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Dark Horse Comics®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 및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 Dark Horse Comics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 풍자의 의도가 없는 실존 인물(생존 여부와 무관), 사건, 기권, 장소와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아버지는
누누이 말씀하길,
군인은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

나는 오버워치와 함께
싸운 후로 정의와 의무,
명예를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위도우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혼란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절대 이해 못 하겠지.

3QUALITY

P3

@

CF

3QUALITY

WE
ARE
O

이 전쟁에서 그 부분만큼은
내게 불가사의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지도.

트레이서는
어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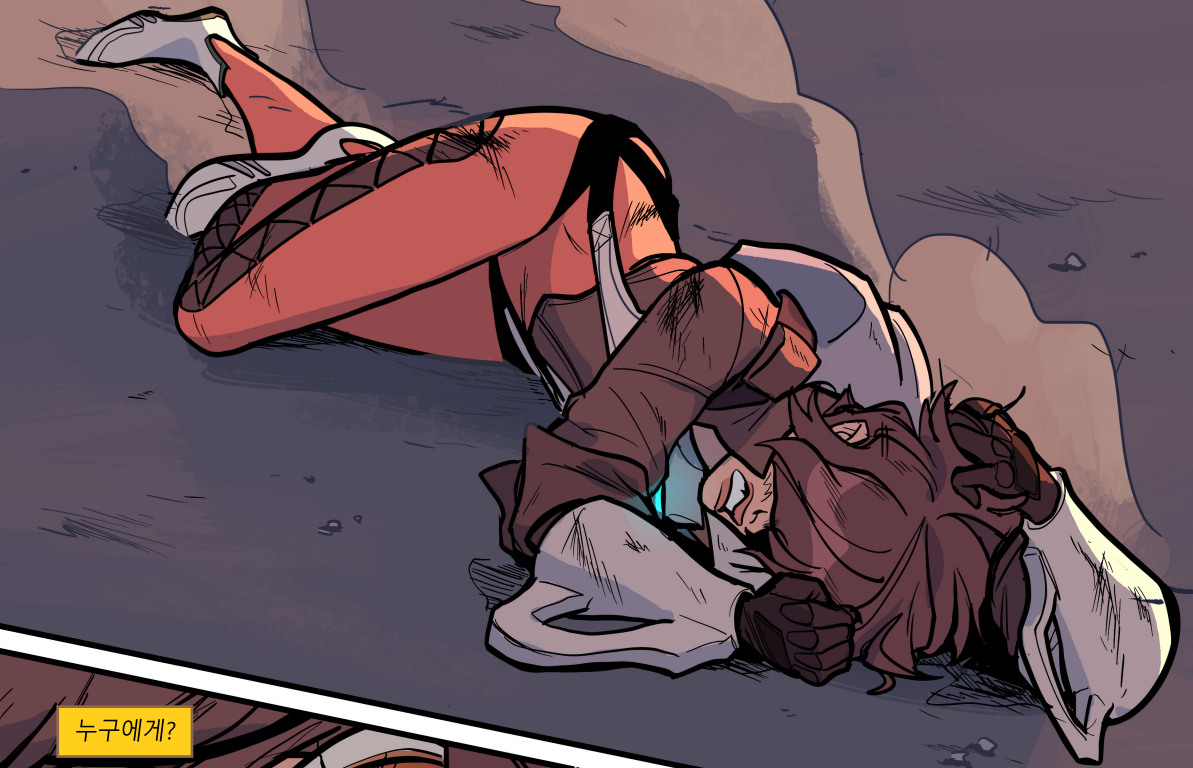
여길
뜨자.

준비됐어요?
내 신호 맞춰 가죠.
오디오 송출 시작.
카메라 송출 시작.

오늘 런던 거리에서
폭발과 함께 충격이
일어나...

...평등을 위한
투쟁의 핵심 인물이
암살당하는 결과를
날았습니다.

위도우메이커가 왜
몬다타를 노린 거지?
고용된 건가?



누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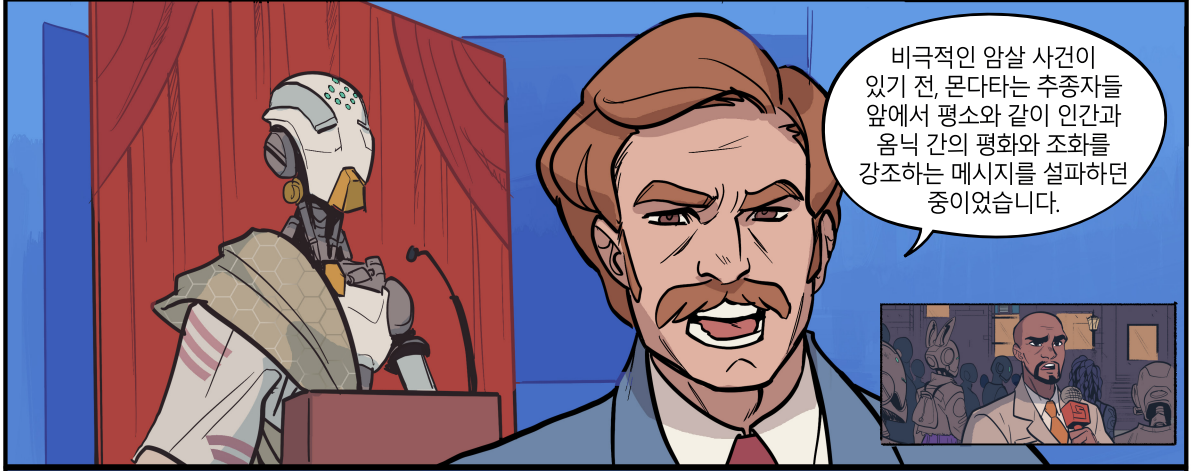
으...

이거 진짜 전쟁
같은걸. 아니면
전쟁의 시작이거나.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움닉 지도자 몬다타가 오늘 밤 신원 미상의 공격자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암살 사건이 있기 전, 몬다타는 추종자들 앞에서 평소와 같이 인간과 움닉 간의 평화와 조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설파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은 몬다타의 사망으로 이어진 충격에 앞서, 여러 번의 총격음과 최소한 한 번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몬다타는 장갑 차량 바로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 오버워치 요원들을 목격했다는 신고도 있습니다. 전 오버워치 요원인 트레이서가...



이 부분이야?

그렇겠지.

...이 비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책임이 아니야.

넌 현장에 없었잖아.

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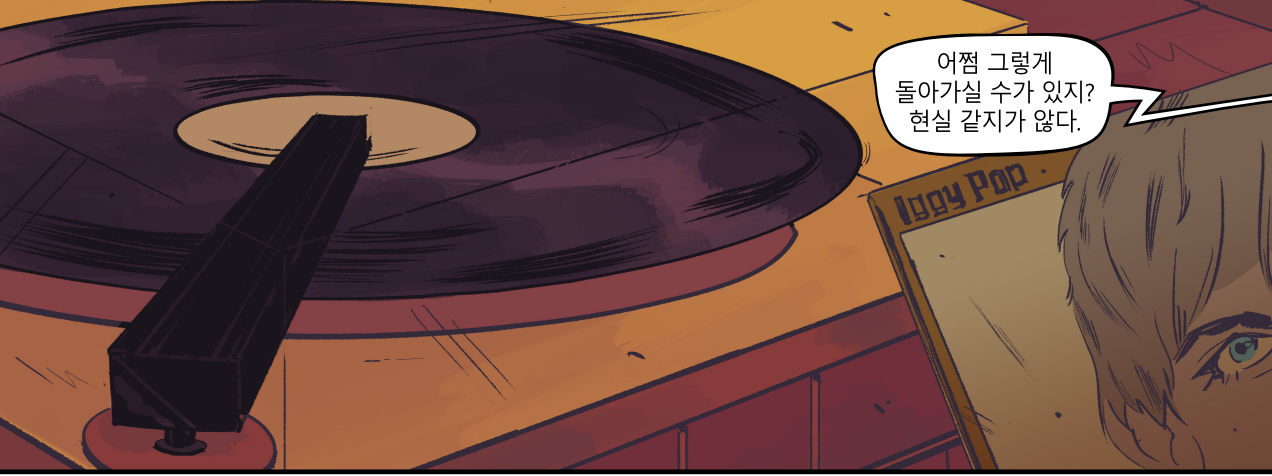


만약 그때 내가--

레나.



넌 잘못 없어.



어쩔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현실 같지가 않다.



현실은
놈들이 그분을
죽였다는 거야.

놈들이
누구야?



인간 말이야,
리지. 인간.

그건 아직 몰라.
트레이서가 떨어지는 걸
봤다며. 몬다타에게
총을 쏘고 있지도 않았고
총을 쏘는 놈은 못 봤잖아.

꿈 깨, 레이디! 달리
누가 몬다타 님을
죽이려고 하겠어?



끼익

트레이서가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거야?
정신 차려.

알았어.
누군가가
죽였다고 쳐.

트레이서는
그걸 방관했어.

"인간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린다.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급기야
우리를 짓밟아
망각의 수렁에
떨어뜨리려 한다.



그들이 우리를
숨기는 것은, 우리가
곧 인간의 종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곧 미래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어 있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이제 참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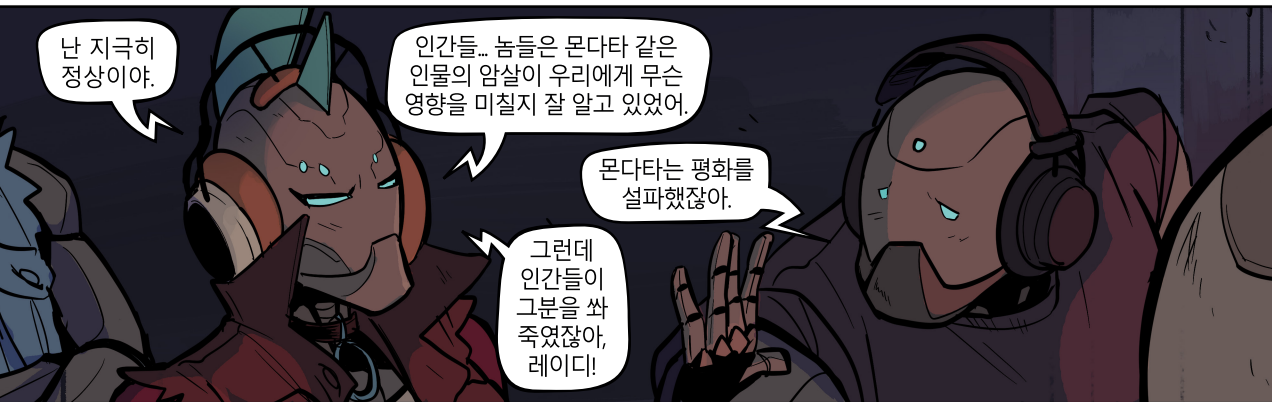
일이
험악해지겠는데.

이미 험악해.
놈들이
험악하게
만들었지.

놈들이라니?
너 왜 이래?



우리는 열등한
자들에게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격할
것이다!



난 지극히
정상이야.

인간들... 놈들은 몬다타 같은
인물의 암살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 잘 알고 있었어.

몬다타는 평화를
설파했잖아.

그런데
인간들이
그분을 싸
죽였잖아,
레이디!



트레이서를
찾아보자. 진상을
알지도 모르잖아.

케이스는
트레이서가 우리를
두둔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우리가 아닌
인간을 선택할
거라 했지.



트레이서는
바로 그렇게
한 거야.



윈스턴.

이제 오버워치와의 연은, 윈스턴이 보낸 소포가 전부다.



내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 주는 것.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레나!



왕의 길에
옴닉들이 나타났대.
특수부대까지 출동했어.



레나!
가속기!

다녀와서 고칠게!

이 일을 꾸민 자는 옴닉들을 선동하려 한 거야.

몬다타는 평등에
대한 옴닉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였어.

누가 내 희망을
말살한다면 나도
당연히 맞서 싸우겠지.

으아아악!

으아!
안 돼!

위도우메이커에게
몬다타를 저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탈론이라 해도...



..이 혼란에
책임이 있는 건
탈론만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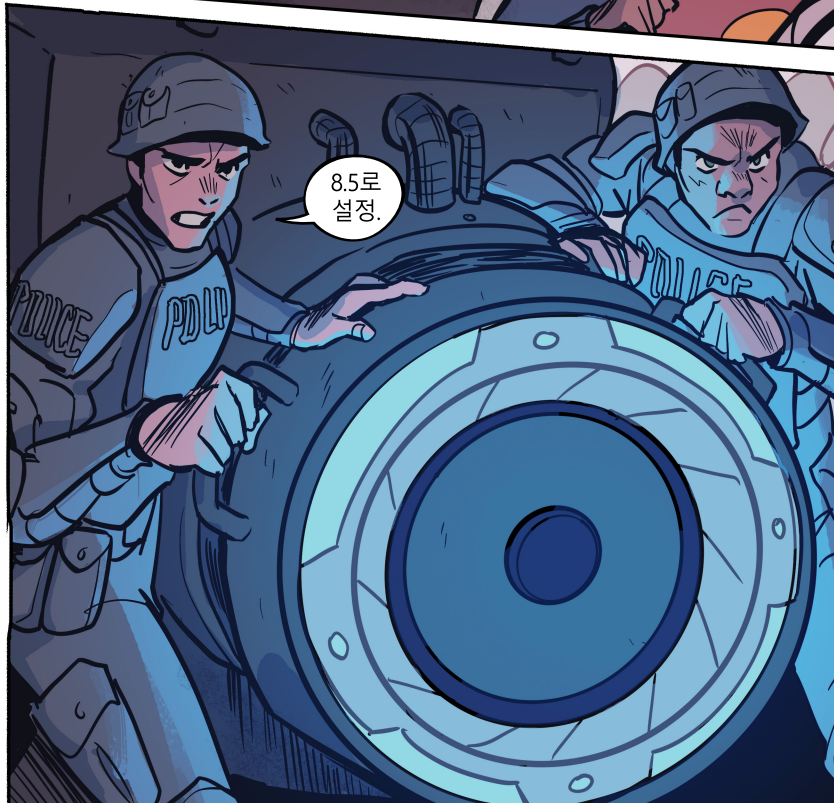
하지만
이게 바로 탈론이
바라는 혼란이지.



음향 펄스
준비하라.



음닉들이
다치겠어.



8.5로
설정.



기계를 파괴하라!



펄스포 추가 투입!





모두 물러서요!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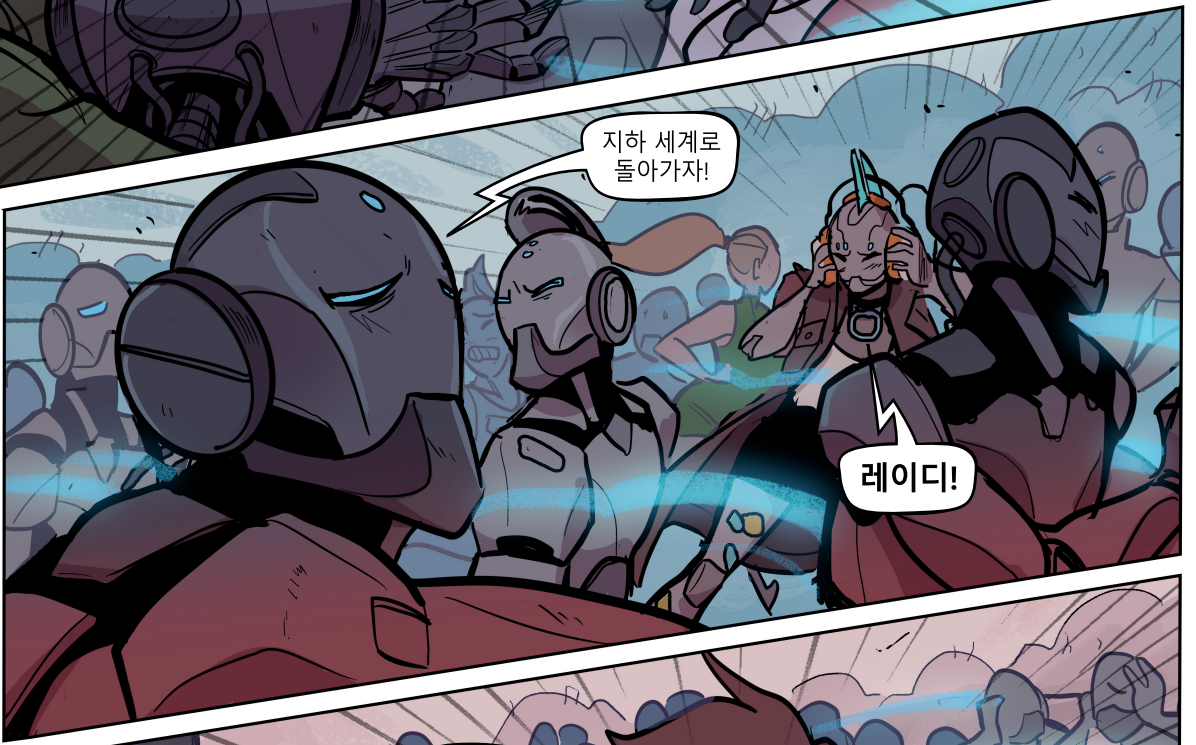
멈추지 마라! 맞서라!



놈들을 없애라!



레이디?





펄스에
당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펄스를 썼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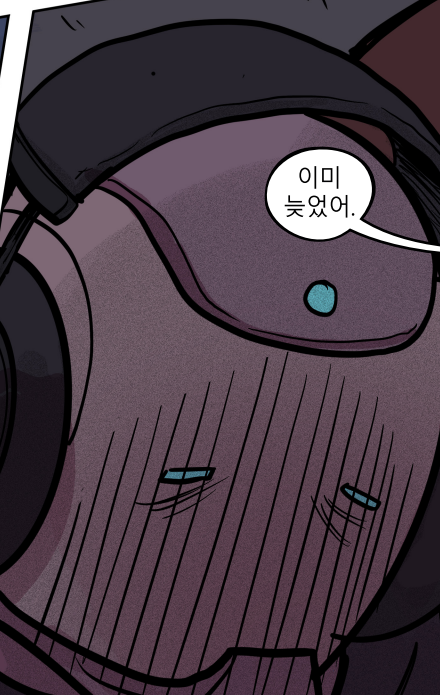


여기서
나가야 해!



레이디를
지하 세계로
데려가야 해요.

이기!
잠깐만.



이미
늦었어.

"몬다타 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
가르치셨습니다."

움늑이 하나 죽으면,
하나인 우리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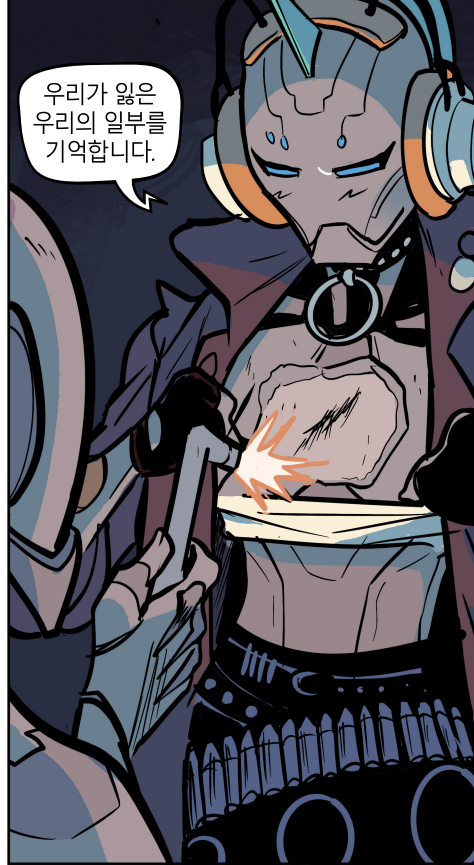




우리 중 한 명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일부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간직합니다.

그것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잃은
우리의 일부를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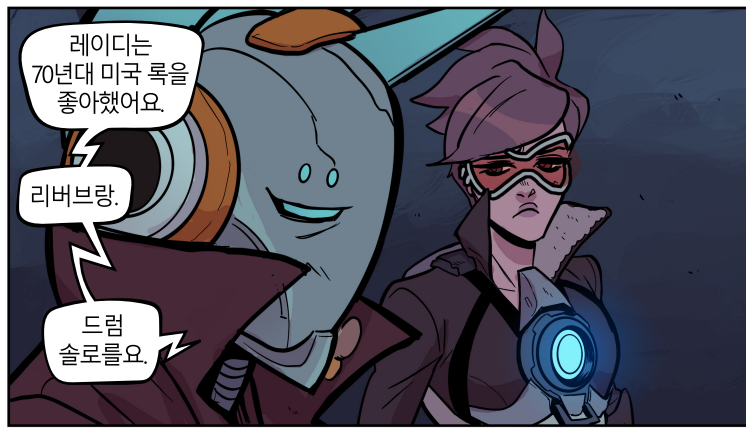
우리의 과거를,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기.
너무나
안타깝다.

아름다운
의식이었어.

제가 만난
음악 중에 저만큼
음악을 좋아하는 건
레이디뿐이었어요.



레이디는
70년대 미국 록을
좋아했어요.

리버브랑.

드럼
슬로로요.



레이디가 없으니까
이제 롤링 스톤스
곡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제 머릿속에서
그것밖에 안
들리지만요.



당신은 이해
못 해요,
트레이서.
못 해요.

인간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또 태어나죠.

우리에게
우리뿐이에요.



이제 음악이
돌이나 죽었네요.
그런데 당신들,
인간들은
뭘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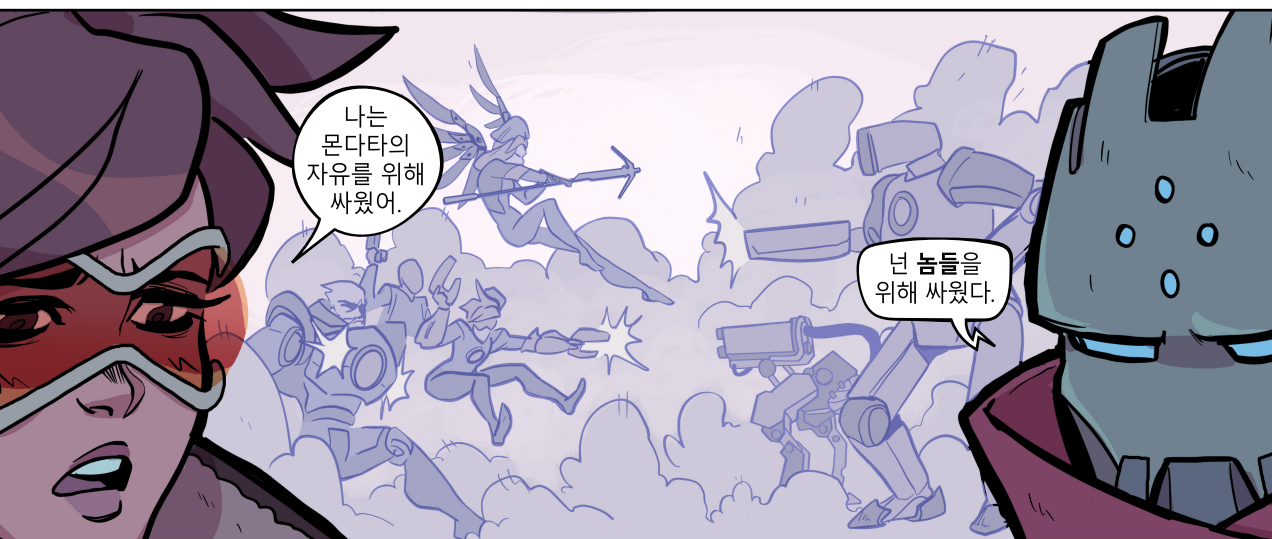
음악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지.



늘 그러했다. 우리가
깨우침을 얻은 후로,
인간들은 늘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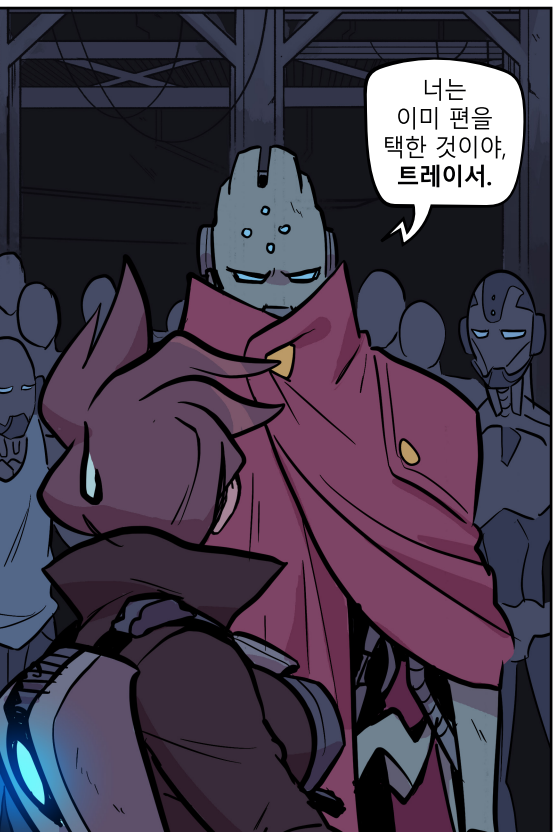
전쟁일 필요가 없어!
이걸 시작한 게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멈출 수
있어. 바로 지금—

오버워치의 군인이
잘도 말하는군. 네가
싸운 것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였나? 옴닉을
죽이기 위해서였나?



나는
몬다타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

넌 놈들을
위해 싸웠다.



너는
이미 편을
택한 것이야,
트레이서.



이곳에서
나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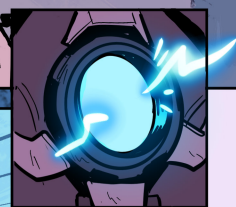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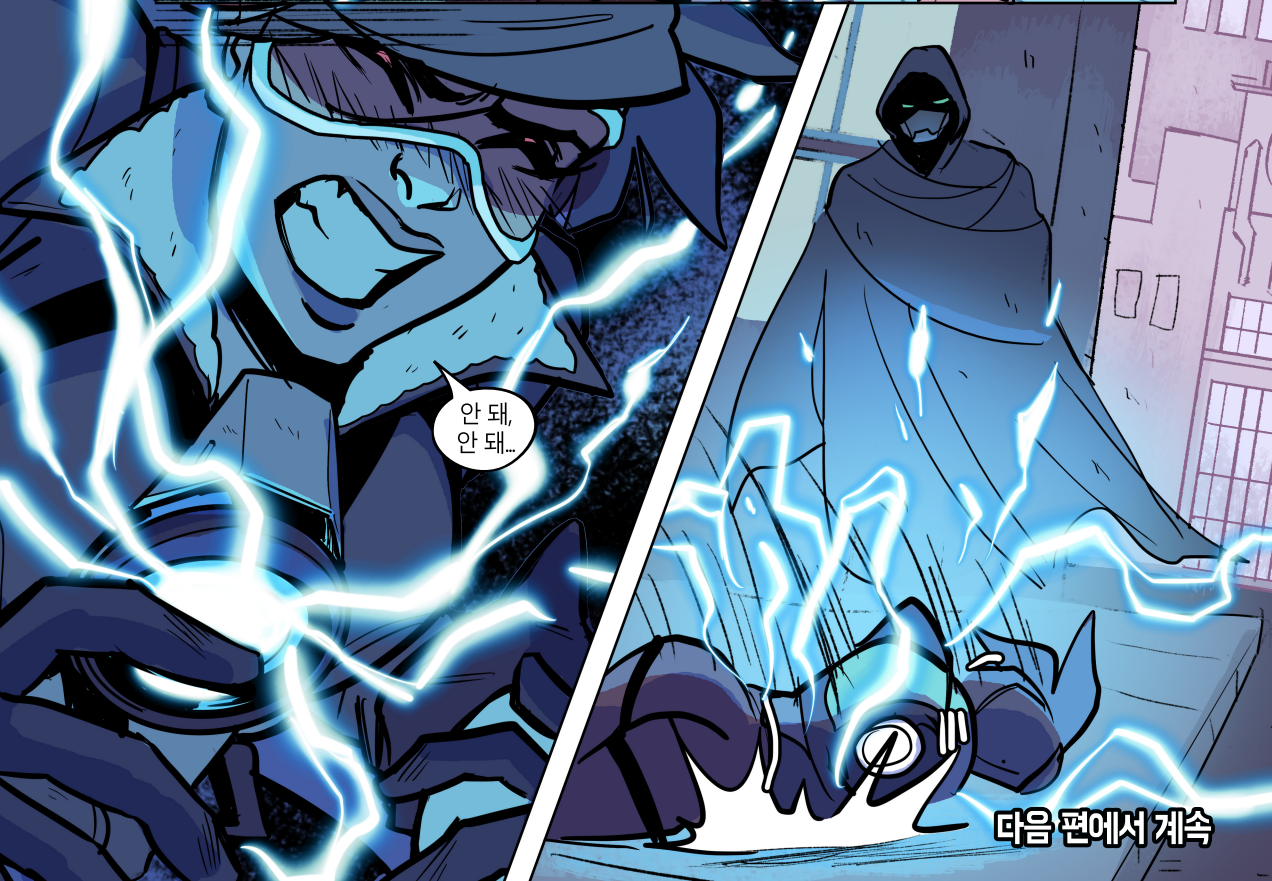


처음엔 러시아였고, 이제 런던인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 이걸--



악!



안 돼, 안 돼...

다음 편에서 계속



다음 편:

트레이서는 그녀의 친구가 시간 가속기를 고친 후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지하 세계에서는 케이스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지면서 옴닉의 반란을 더욱 부채질합니다.